

김희선원장과 배영미씨를 즉각 석방하라

최근 당국은 한편에서는 대타협을 내걸면서 수배자를 검거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검거된 민주운동가들에게는 사건 조작을 위해 무자비한 고문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성고문과 강제추행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성고문이 민중·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가장 비열한 탄압이며, 이러한 고문과 성폭행의 근본원인이 폭력적 탄압없이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에 있음을 폭로하고 지난 6월 26일-28일 규탄농성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더욱더 경악스러운 소식이 전해져왔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천경찰서에서 옥봉환서장과 유희수과장의 지시를 받아 형사 문귀동이 권양에게 온갖 성고문을 자행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단체연합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의 전화 김희선원장**이 7월 2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불법연행되었으며 4일 구속되었다. 또한 부천 성고문진상을 듣고 7월 2일 부천경찰서에서 항의농성을 한 노동자 배영미씨가 당국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는 명백히 **성고문문제와 관련하여 불붙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꺾고, 성고문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탄압인 것이다.** 이는 또한 성고문을 자행한 수사당국과, 성고문을 사주한 현 정권을 폭로하는 외침에 위압감을 느껴, 더이상 폭로하지 못하도록 무장력까지 동원하는 독재정권의 작태인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고문정권이 자행한 성고문사건이 권양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인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김희선원장과 배영미씨의 즉각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이상의 사실은폐, 왜곡은 결국 전 국민의 거대한 분노를 자아낼 것이다.

성고문을 폭로하다 7월18일 검거 되어 구속된 김연지양, 이종원씨, 백운태군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 폭로대회

7월 19일,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 폭로대회에서 당국은 **파렴치한 탄압으로 폭력정권의 실상을 전 국민 앞에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이 땅에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소수 집권층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독재정권의 말기적 작태에 다시 한번 뜨거운 피가 우리들 몸에 솟구쳐 오름을 느낀다. 국민들이 다니는 길을 봉쇄하고, 전투태세를 갖춘 수천의 전경들이 집회장소를 에워싸며, 고문 및 용공조작 폭로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한 최루탄세례를 퍼부은 만행은 결국 현 정권이 끊임없이 고문과 용공조작을 자행하여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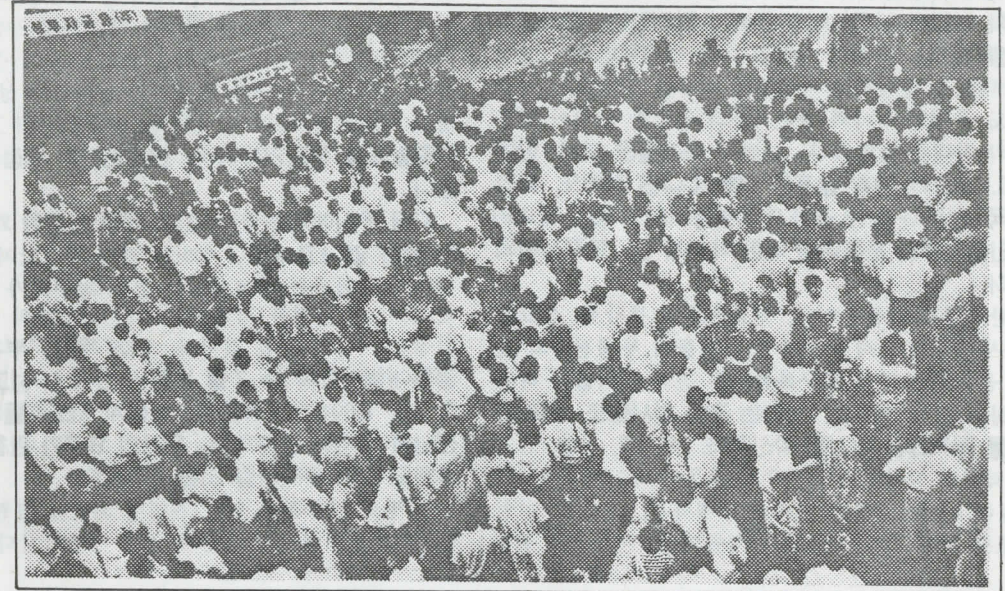
만일 성고문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왜 불법집회라는 명목으로 폭력적인 저지를 감행하였는가! 국민들에게 무차별한 최루탄세례를 퍼붓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국민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왜곡 발표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언론은 양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였는가!

고문과 용공조작을 밥먹듯이 해대는 군사독재정권의 작태를 이제 더이상 눈감아 줄 수 없다. 역사의 심판대가 지금 전 국민의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 땅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용공조작을 끝장내기 위해, 전 국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현 정권과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가자! 우리의 자유와 정의를 찾아!

- 법원이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인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 무책임하게 편향, 왜곡보도하는 언론에 강력한 항의전화를 합니다.
 -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여 다치게한 현장을 보도하지 않고, 전 항의 전화를 합니다.
 - 왜곡·편향보도하는 KBS의 시청료거부운동을 더욱더 널리 확산합니다.
 - 이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이 철저히 규명되고 성고문을 추방하기 의논해 봅시다. 의논사항을 즉각 실행에 옮깁시다.
 -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이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요구와 결의를 곳곳에서 천명합니다.
 - 터무니없는 발표를 한 인천지법 특수부장 김수장검사에게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발표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공대위 소식지에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오후 8시 원주원동성당에서 2000 여명의 신자들이 “성고문을 고발한다”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1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장상연합회가 수녀, 신도등 1800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회복을 위한 미사’를 마련, 김수환추기경은 강론에서 당국은 성고문사건을 은폐하지말고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농민·도시 빈민의 생존권위협과 인권박탈정책을 중단하라고 밝힘.

성고문진상을 은폐하는 검찰수사결과를 전면 거부한다!



위 사진은 7월 19일 고문·성고문·용공조작 범국민 폭로대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차단된 대회장입구에서 시위하는 현상임.

☐ 우리의 결의 ☐

1. 우리 이천만 여성들과 전 여성단체는 여성의 수치심을 악용하여 성적폭행을 고문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번 사건을 전 여성들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유린과 만행으로 받아들이며,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비열하고 추악한 성고문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다.
2. 신구 기독교와 불교를 비롯한 우리 전 종교인들은 이번 성고문사건이 존엄한 인간과 인격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모독이자 모든 종교인들의 양심과 온 국민의 도덕, 윤리 의식에 대한 결정적 도전이라 보고, 인간의 존엄성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들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호소 ☐

우리들은 전 민주화운동단체와 국민들에게도 우리의 싸움에 적극 동참해 줄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할 때, 다음 희생자는 바로 나와, 우리의 딸들, 아내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의 요구 ☐

1. 부천 경찰서장 옥봉환, 수사과장 유희수, 성고문 하수인 문귀동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2. 강제추행, 고문폭력수사 책임지고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물러가라.
3. 고문수단으로 강제추행 자행하는 파렴치한 군사독재정권 물러가라.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영숙선생)
천주교 수녀회 장상연합회 (회장 김순자수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고문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상근 목사)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회장 청화스님)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의장 제정구선생)
(연락처 :)

7월 17일 검찰 발표를 전면 거부한다!!

가제는 계편이라더니! '고문사실을 검사한테 얘기해도 소용없다. 우리 한 통속'이라고 호언한 문귀동의 발언이 들어맞았으니!!

우리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접하여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 전대미문의 추악한 범죄가** 단순히 공권력의 위신실추에 국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법질서와 인권과 인륜도덕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경우에만은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공정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배신당하였고, 오히려 **검찰 발표와 덧붙여 나온 정제도 아리송한 공안당국(신문사 확인 결과 안기부장이라고 함)의 미리 준비한듯한 민중민주화 운동권에 대한 악의에 찬 모략선전의 공세를** 받았다.

도대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전대미문의 추악한 성고문을 저지른 수사당국이 오히려 운동권 학생들이 투쟁전술의 일환으로 성을 공유하고 성을 도구화한다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 한사람도 이러한 **검찰의 발표를 믿지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러한 검찰, 안기부등의 상투적이고 악랄한 민중민주화 운동의 매도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여대생 추행사건, 고숙중 여인 사건, 김근조씨 치사사건, 김근대 민청연의장, 서노련 활동

가들 고문 등에서 드러난 수사당국의 폭력적 고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성을 도구로 하여 허위날조한 권양을 왜 무고죄로 기소하지 않는가? 문귀동이 권양을 서너차례 가슴을 주먹질했을까? 아니면 그 정도의 가혹행위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까지를 문책할 정도로 우리나라 검찰의 인권의식이 성장했는가 의아스럽고 가소로울 뿐이다. 우리는 **변호인단의 고발내용을 믿고 검찰발표를 전면거부하며,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큼 더 중대한 일은 없다고 본다. 개헌을 백번 해보았자 이런 사건을 호지부지 덮어가는 풍토에서는 결코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임을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8시 성고문 보고대회에 참석한 180여명의 종교계, 여성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 성고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일보의 후퇴도 없이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 땅의 민주화와 인간 존엄성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남녀 민주시민들이여,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 우리의 요구 -

1. 성고문을 자행한 문귀동과 부천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등 관련자를 전원 파면, 구속, 처단하라!
1. 강제추행, 고문·폭력수사 책임지고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 물러가라!
1. 성고문 진상은폐하는 검찰총장 물러가라!
1. 사건을 왜곡 조작한 소위 "공안분석" 책임자 처벌하라!
1. 이번 사건을 무책임하게 편향 보도하는 언론은 각성하라!
1. 법원은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라!
1. 이 사건을 항의하다 구속된 여성의 전화 원장 김희선씨, 노동자 배영미씨를 즉각 석방하라!

1986. 7. 18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 대책위원회
7·18 진상보고대회 참석자 180명 일동

"우리는 검찰의 발표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 검찰발표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 —

1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 접한 우리들 변호인단은 분노에 앞서서 깊은 절망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검찰은 그동안 전례없이 성실한 자세로 이 사건 수사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권양의 성고문 주장이 의심할 여지없는 확고부동한 진실임이 드러내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고심끝에 찾아낸 진실을 발표과정에서는 허겁지겁 왜곡하고 은폐해버렸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여 "폭언·폭행만 있었고 성적모욕은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발표내용

이 나왔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발표과정에서 검찰권의 독립적 행사를 저해하는 외부세력의 작용이 개입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항간의 소문대로 당초에는 문귀동을 구속할 방침이었다가 급작히 기소유예방침으로 전환한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검찰의 소신과 명예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지 않는다. 국민들 중 누구도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지 않을 것이다.

2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첫째, 문귀동이 권양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권양을 한 차례 조사한 일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성고문사건 당일 알리바이까지 제시하다가, 위 주장이 관계증거에 의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 또한 다른 형사들까지 동원돼 문귀동의 당초의 허위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모두 조작임이 판명되었다. 예컨대 문귀동의 허위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천서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검찰발표와 같이 문귀동이 권양을 조사할 당시 '조사에 열중한 나머지 우발적인 과오로 인하여' 권양의 가슴을 주먹(손등)으로 서너차례 툭툭 건드린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한다면, 대체 무엇때문에 문귀동은 조사 횟수, 조사시간, 입회형사 유무등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 관해서부터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을 조작하여 완강히 버티었으며, 더구나 무엇때문에 부천서 전체가 공모하다시피하여 감히 조직적으로 검찰을 기만하면서까지 집요하게 문귀동의 허위주장을 감싸고 돌았겠는가?

둘째, 원래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증언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제반 정황에 비추어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써 얼마든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귀동과 권양 중 어느 쪽의 주장을 믿어야 할 것인가? 43명의 참고인들을 조사한 끝에 모두 세부적인 정황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도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권양의 시종일관된 진술내용과, 알리바이까지 조작해가며 허위주장을 내세우다 파탄에 부딪치자 약간의 폭언·폭행 사실만을 자백한 문귀동의 진술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 것인가?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수감생활 속에서 수치심과 굴욕감 때문에 오랜 번민과 망설임을 거쳐 마침내 여성으로서의 전도를 희생하는 결단을 내리고 차마 입으로 읊길 수도 없는 처참한 피해사실을 눈물로써 호소하기에 이른 23살의 미혼처녀의 주장과 범행을 깡그리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까지 한 문귀동의 주장 중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세째, 검찰은 다른 경찰관들이 성고문 사실을 목격하거나 감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성고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권양에 대한 조사가 경찰서 내에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하고 없는 토요일 깊은 밤중에 밀폐된 조사실에서 이루어진 사실, 검찰도 자인하듯이 당시 조사실 내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마당 전등의 외광만이 겨우 명암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희미하게 흘러들고 있는 가운데서 권양과 문귀동 단 둘만이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 따라서 누가 왕래하였다 해도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은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었던 경찰관들의 진술을 가지고 성고문이 없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실로 이해할 수가 없다.

성고문 공대위는 7월9일 변호인단으로 부터, 사건의 진상을 보고 받고 11일 이 사건의 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 5개 단체가 발족한 것입니다.

네째, 검찰발표는 부천서에 수감되었던 두 여인이 '권양이 성적모욕을 당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적모욕이 없었다는 검찰의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나 되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두 여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권양으로부터 "옷을 벗기고 젖가슴을 주무르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폭행을 당했다'는 말만을 들은 것으로 둔갑하였는지 알길이 없다. 또 유치장에 있었던 김철한이 권양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증언하였음에도 검찰발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다섯째, 우리가 알기로는 경찰관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문귀동이 권양을 벗기우고 유방을 주물렀음과 조사 도중 권양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시인하였다. 문귀동이 토요일 밤 중에 조사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끈채 권양에게 수갑을 채우고 한시간 반 가량을 권양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성적 모욕을 가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믿겠는가.

여섯째, 처녀의 젖가슴을 성적모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타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권양 자신은 시종 일관 문귀동이 유방을 주물렀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에서 '주물른 것과는 크게 다르고 손등으로 가볍게 툭툭 건드린 것'이라고 단정하는가? 문귀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인가?

3우리는 권양에 대한 비열하고 악의적인 모함과 중상으로 가득찬 '공안당국의 분석자료'라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체불명의 '공안당국'이란 대체 누구인가? 권양 사건을 조사한 당사자도 아닌 검찰 이외의 공안당국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권양의 피해사실 주장을 운동권학생의 상습적인 의식화투쟁의 일환이라고 단정하는가? 지금까지 운동권학생들이 고문·폭행·추행사건을 조작한 전례라도 있단 말인가? 더우기 23살의 처녀가 어떻게 추악한 성고문을 당하였다는 허위주장을 조작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공안당국의 그 분석이란 것이 어떤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4우리는 권양을 접견하면서부터 권양의 피해사실주장이 진실이라는 확고한 심증을 얻었다. 우리가 검찰의 발표내용을 믿을 수 없는 6가지 이유는 성고문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6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변호인단 일동은 우리의 모든 직업적 및 인간적인 긍지와 명예와 성실성을 걸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권양의 모든 주장은 단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다. 이 전대미문의 만행의 진상이 백일하에 공개되고 그 관련자들이 남김없이 의법처단되기 전까지는 우리들 변호인단은 물론이요,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산천초목까지도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하나에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인권과 인륜도덕의 존폐가 달려있다. (이상은 1986. 7. 18. 9명의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임).

문귀동 처단! 처단!! 처단!!!